

이라크 파병부대 신고 및 환송식 치사

친애하는 서희부대와 제마부대 장병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장병 여러분의 늠름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과연 먼 이국땅 이라크에서 대한민국 국군을 대표할 만하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엄격한 선발과정과 고된 훈련을 거쳤습니다. 모두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이틀 후면 장도에 오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귀환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가족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장병 여러분,

이라크에서의 전쟁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이제부터의 과제는 구호와 복구입니다. 지금 이라크 국민들에게는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들은 전쟁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혈육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오랫동안

동안 고난의 세월을 겪어 온 그들이 이제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국민들은 지금 따뜻한 인류애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1천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복구와 재건에 필요한 무상원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한 많은 민간단체들도 함께 나섰습니다. 정부는 민간단체들의 구호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대열의 선봉에 서 있습니다. 이번 파병도 '참전'에서 '복구와 구호활동'이라는 새로운 성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라크 전쟁의 명분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파병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진통이 적지 않았습다. 그러나 이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지금부터 전 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입니다.

지금 이라크 국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전쟁의 고통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루빨리 평상의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파병부대 장병 여러분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라크 땅에 평화의 씨앗을 뿌린다는 자세로 따뜻한 인류애를 발휘해 주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장병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이제 국제사회의 관심은 다시 북한의 핵문제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단계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습니다. 전쟁만은 절대 안 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관련국들을 설득해 왔습니다.

나는 다음 달 15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의 완전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양국이 공동 협력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 부시 대통령과 진지

하게 협의할 것입니다.

나와 참여정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확고히 지켜낼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 가는 든든한 토대를 다져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병 여러분,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녀오십시오. 이라크 국민들의 가슴속에 한국 국민들이 전하는 평화의 메시지를 심어 주십시오. 나는 여기 계신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온 국민들과 함께 여러분의 안전과 건승을 기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병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무운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